

사회 >

'파주 DMZ 평화의 길'운영 재개... 회당 20명서 10명내로 줄이기로

조철오 기자

입력 2020.12.04 04:10

경기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넘게 중단했던 '파주 DMZ 평화의 길' 운영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. DMZ 평화의 길은 관광객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일대를 살펴보도록 조성됐다. 파주 구간은 총 길이 21km(도보 이동 거리 1.4km)로,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전망대, 통문, 철거된 감시초소(GP)까지 연결된다. 약 3시간이 소요되며 주로 해설사 2명과 함께 25인승 버스를 타고 움직인다.

파주시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참가 인원을 회당 20명에서 10명 이내로 줄였다.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등 하루에 두 번 운영한다. 관광객은 모바일 자가 진단을 반드시 해야 하며 발열 체크,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. 참가 희망자는 한국관광공사 'DMZ 평화의 길 누리집'(www.dmzwalk.com)이나 행정안전부의 '디엠지기 누리집'(www.dmz.go.kr)에서 신청하면 된다. 최종환 파주시장은 "평화의 길 운영 재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

조철오 기자

